

‘불청객’ 엘니뇨 올해도 온다

세계기상기구 “3~6월중 발생 가능성”

동태평양-페루 해수면 2도 상승

97~98년 재앙 초기상황과 비슷

엘니뇨로 발생한 세계의 기상이변(97~98)



41개국 홍수-22개국 가뭄 피해 41조원

97~98년 엘니뇨 사상최악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 특히 97~98년 발생한 엘니뇨는 사상 최악이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97~98년에 발생한 엘니뇨로 세계 곳곳에서 320억달러(약 4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동남아 지역의 피해만 200억달러가 넘었다고 98년 집계했다.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97~98년 엘니뇨현상으로 41개국에

서 홍수 피해를, 22개국에서 가뭄 피해를 보았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대규모 삼림 화재가 몇 달이나 계속돼 동남아 일대가 거대한 연막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국도 당시 엘니뇨와 관련된 각종 재해로 모두 2000억여원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

이에 앞서 82~83년 발생한 엘니뇨는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 호주에 가뭄을, 페루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대홍수 등을 유발해 세계적으로 6조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냈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

엘니뇨란... 동→서 海流 반대로 흘러 기상이변

엘니뇨란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 또는 ‘사내 아이’라는 뜻. 보통 예수의 탄신일인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발생,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태평양의 적도 인근 해역의 수온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상승해 세계 곳곳에 폭풍 홍수 가

뭉 등 재난을 몰아오는 이상 기후현상이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바닷물 온도가 2~3도, 심하면 8~10도까지 올라간다. 이때 평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던 태평양의 해류가 정반대로 흘러 미주 대륙과 부딪치면서 기상이변을 몰고 온다.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뭄과 폭우 등 기상이변을 몰고 오는 엘니뇨가 97~98년에 이어 올해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세계기상기구(WMO)가 27일 전망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마이클 재러드 WMO 사무차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동태평양 열대지역과 에콰도르 페루 인근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등 전형적인 엘니뇨 초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몇 주간 기후변화 상황을 좀더 주시해봐야 하겠지만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3~6월이 엘니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말했다.

▽엘니뇨 발생 가능성 65%=마이클 코플란 유엔 기후계획국장도 “최근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홍수가 발생한 것은 97~98년 엘니뇨가 발생할 당시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상학자들이 이 같은 징후가 개별적인 사건인지, 엘니뇨의 발전 단계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97년 엘니뇨로 인한 최악의 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던 말레이시아 정부도 빠르면 5월경 엘니뇨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23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기상국 대변인은 “말레이시아에서 5~10월에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65% 이상”이라며 “엘니뇨가 발생할 경우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잇따르고 가뭄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적도 해수 2도 상승=미국 해양대기국(NOAA)도 7일 “동태평양 적도해역의 표면 수온이 예년보다 2도가량 높아졌고 이 해역의 강수량도 크게 늘어났다”며 “이 같은 수온 상승은 엘니뇨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발표했다.

NOAA는 “아직 이번 엘니뇨의 영향범위나 미국의 기후 상황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는 이르지만 태평양 열대수역의 수온 상승 현상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페루 정부는 최근 해수 온난화로 냉해 어종인 앤초비가 사라지고 열대 어종들이 나타났으며 이는 97년 엘니뇨 당시에도 발생했던 현상이라고 밝혔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